

아프간전쟁 승리의 전략전술

- 클라우제비츠의 무게중심 이론을 중심으로 -



교수 김재명 (문학박사)
성공회대

- I. 머리말
- II. 클라우제비츠의 무게중심 (Center of Gravity) 이론
- III. 빈 라덴이 설정한 미국의 무게중심
- IV. 미국이 격파해야 할 ‘빈 라덴의 무게중심’
- V. 글을 마치며

<필자 약력> 서울대 철학과, 뉴욕시립대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정치학박사(국민대), 전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현대사팀장(차장), 현 <프레시안> 기획위원(국제 분쟁 전문기자) 겸 성공회대겸임교수.

<저서> 『한국현대사의 비극 : 중간과의 이상과 좌절』 (2003년, 선인), 『나는 평화를 기원하지 않는다, 국제분쟁전문가의 전선리포트』 (2005년, 지형), 『20세기 전쟁영화가 남긴 메시지 : 전쟁 No! 평화 Yes!』 (2006년, 프로네시스), 『석유, 욕망의 샘』 (2007년, 프로네시스), 『눈물의 땅, 팔레스타인』 (2009년, 프로네시스).

I. 머 리 말

21세기 문턱이라 할 2001년 9월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지도 벌써 8년이 지났다. 3천명 가까운 목숨을 하루아침에 앗아가면서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던 9·11 테러사건의 후폭풍은 국제정치의 지평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란 이름 아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과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리고는 북한, 이란, 시리아 등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만한 반미국가들을 ‘악의 축’이라고 낙인찍으면서 이들 국가가 이라크에 처처럼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압력을 가해왔다. 그런 국제정세 아래서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대통령은 체제안보의 부담을 덜고 국제사회의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날의 반미노선을 거두고 미국의 중동정책에 타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미국의 평화’는 불안한 평화다. 특히 테러 위협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불안에 떠다. 걸핏하면 테러비상이 걸리곤 한다. 많은 시민들은 이른바 ‘미국 요새’(American fortress) 안에 있으면서도 테러공포로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9·11 뒤 미국이 벌여온 ‘테러와의 전쟁’은 ‘전쟁-종전협정-평화’라는 고전적인 등식과는 다르다. 전 세계 반미 저항세력들을 상대로 벌이는 21세기의 새로운 ‘무한전쟁’의 가능성마저 보인다.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은 테러리스트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거듭 말해왔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의 저항세력은 그들이 벌이는 투쟁은 침공국인 미국에 맞서는 ‘반미 지하드(jihad, 성전)’라 여긴다.

서구의 테러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테러의 개념을 ‘정치적 동기에 의한 폭력’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국가가 아닌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인 무장집단들이 왜 테러를 벌이는가의 정치적 동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테러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과 영국의 시각에선 ‘테러와의 전쟁’ 또는 ‘전 세계 극단주의와의 투쟁’이지만, 이슬람 저항세력의 입장에선 지하드다.¹⁾ 이렇게 상이한 두 세력이 맞설 경우 군사적 승리는 쉽지 않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1)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정신적 지도자 셰이크 아흐메드 야신은 2002년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의 저항은 순교이자 지하드다. 우리의 저항을 ‘테러’라 일컫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벌이는 ‘국가테러’에 맞선 ‘테러의 균형’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재명, 『나는 평화를 기원하지 않는다.』 (서울 : 지형, 2005), pp.78~82.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반미정서를 녹이고 민심을 끌어안을 수만 있다면 그 전쟁은 확실히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주제는 “승전국은 패전국의 민심(public opinion)을 ‘점령’(장악)해야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고 지속적인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민심을 ‘점령한다’(occupy)란 군사적 용어이지만, 곧 민심을 얻는다(secure)는 뜻이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민심을 달래고 흥흥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승전국이 점령정책을 효율적으로 펴나가기 위한 현실정책적인 방편이라 지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승전국이 전통적인 정의의 전쟁론(just war theory)에서 한 기준으로 꼽는 ‘올바른 의도’(right intention)를 갖고 패전국의 안정과 국가재건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전쟁을 정의롭게 종식시키는 기준에 합당한 도덕적 의무다.

일반적으로 정의의 전쟁(just war) 이론은 세 가지 기준으로 구성된다. 즉 전쟁을 정당하게 시작하는 ‘전쟁 선포의 정당성’(jus ad belgaum), 전쟁 중에 전쟁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전쟁 행위의 정당성’(jus in ballo), 그리고 전쟁 마지막 단계에서 정의롭게 전쟁을 마무리하는 ‘전쟁종식의 정당성’(jus post belgaum)이 그러하다. 위의 세 기준이 각기 모두 중요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전쟁종식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전승국은 패전국(피점령국)의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심을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끊임없는 저항과 혼란이 거듭될 뿐이다.

‘전쟁종식의 정당성’(jus post belgaum)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교전국의 민심을 사로잡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는 브리안 오렌드도 강조했다듯이 ‘올바른 의도’(right intention)가 매우 중요하다.²⁾ 패전국에 대해 복수를 하겠다는 의도를 버리고, 전후 국가재건을 돕겠다는 전승국의 ‘올바른 의도’는 피점령국 민심을 안정시키는 요체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전쟁 마무리 단계에서 인간안보와 지속적이고 정의로운 평화를 실천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한편 클라우제비츠는 “아무도 전쟁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먼저 분명히 하지 않고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고 단언했다.³⁾ 클라우제비츠가 의도한 것은 전쟁의 승리다. 그는 이른바 ‘정의의 전쟁론자’는 아니며, 따라서 정의의 전쟁

2) Orend, *War and International Justice: A Kantian Perspective*, p.232.

3) Clausewitz, Carl von. *On War*, translated by Michael Howard & Peter Paret.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579.

이론에 대한 논의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의 무게 중심(center of gravity) 이론을 21세기 전쟁과 평화 분석에 적용하면, 그 나름의 유효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쟁지역의 민간인 다수의 마음을 ‘점령’해야(마음을 사로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클라우제비츠의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 이론의 틀을 적용하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후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전술을 도출해 내는데 목적이 있다.

II. 클라우제비츠의 무게 중심(Center of Gravity) 이론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이란 ‘전쟁 당사국들의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힘과 움직임의 중심’(the hub of all power and movement)을 뜻한다.⁴⁾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기획할 때 첫 번째 임무는 적의 무게중심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될 수 있는 한 그것을 단순화시키는 일이다. 두 번째 임무는 아군의 전투력을 한 군데로 모아 적의 무게중심을 공격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⁵⁾ 클라우제비츠 군사 교리의 핵심은 “먼저 적과 나의 무게중심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나의 무게중심을 지키면서 아울러 적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는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요약된다. 만약 적의 무게중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실패한다면, 또는 제대로 파악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격파하는 데 실패한다면, 또는 나의 무게중심을 잘못 파악했거나, 제대로 파악했더라도 그것을 방어하는데 실패한다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⁶⁾

클라우제비츠는 그의 무게중심 이론에 바탕,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몰락을 불러일으켰던 러시아 원정 실패 이유를 분석했다. 당시 나폴레옹은 러시아의 무게

4) Ibid. pp.595~596.

5) Ibid. p.619.

6) 무게중심이론에 대한 미 각 군과 합참의 정의에 대해서는 Antulio J. Echevarria II, “Clausewitz’s Center of Gravity : Changing Our Warfighting Doctrine Again!”, <http://www.clausewitz.com/CWZHOME/ECHEVAR/gravity.pdf>. 참조
클라우제비츠의 무게중심 이론과 2003년 이라크전쟁의 관련에 대해선 Anthony F. Sidoti, “The Relevance of Carl Von Clausewitz in Operation Iraqi Freedom”, *Air & Space Power Journal* 21, January, 2004. <http://www.airpower.maxwell.af.mil/airchronicles/cc/sidoti.html> 참조

중심을 수도인 모스크바로 설정하는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나폴레옹은 일단 모스크바를 점령하면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고 믿었다. 클라우제비츠에 따르면, 광활한 영토를 지닌 러시아의 무게중심은 특정 영토(모스크바)가 아니라, 바로 러시아 군대였다. 나폴레옹과 그의 프랑스 군은 전술적 후퇴를 거듭하는 러시아군을 쫓아 진격하다가 마침내 모스크바를 점령했지만, 겨울 추위 속에 러시아군의 반격에 밀려 결국은 패퇴하고 말았다.

클라우제비츠의 무게중심 개념은 시기에 따라, 또는 군부대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돼왔다. 미군 안에서도 1990년대 중반까지 각 군마다 다르게 정의됐다. 미 육군과 해군은 육지나 바다에서의 핵심 군사력(the core of one's land or naval power), 그리고 육체적 심리적 전투력의 '원천'(source)으로 풀이했다.⁷⁾ 미 공군의 무게중심 개념은 공습으로 마비시켜야 하는 적의 공격목표물들이다.⁸⁾ 미 해병은 상륙작전에서 적의 가장 취약지점으로 각기 정의했다.⁹⁾ 이렇게 달리 정의되던 무게중심은 미 합참에 의해 1995년 Joint Pub 3-0 문건으로 통합 정리됐다. 이 문건은 무게중심은 '적의 힘의 원천들'(the enemy's sources of power)로 정의 내리면서, 군사작전의 요체는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적의 힘의 원천들'에 대해 강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 규정했다. 아울러 이 문건은 무게중심을 가리켜, '한 부대가 자유롭게 작전을 펴고 육체적 힘과 강한 전투의지를 끌어낼 수 있는 특성, 역량, 또는 위치'(characteristics, capabilities, or locations from which a military force derives its freedom of action, physical strength, or will to fight)라고 설명했다.¹⁰⁾

클라우제비츠에 따르면, '전쟁이란 단순한 군사적 행위가 아닌, 우리의 의지를 적에게 관철시키는 정치적 행위'다.¹¹⁾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효한 군사적 수단'이며, '다른 (물리적) 수단들을 동원한 정치적 관

7) FM 100-5, 1993, p.6~13 ; Department of the Navy, Naval Warfare : NDP 1,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the Navy, March 1994, p.72

8) Department of the Air Force, Air Force Doctrine Document 1,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the Air Force, September 1997, p.79

9) Department of the Navy, Warfighting: FMFM 1, Washington, DC : U. S. Department of the Navy, 1989, p.85.

10) Joint Pub 3-0, p. GL-4

11) Clausewitz, Carl von.. *On War*, translated by Michael Howard & Peter Paret.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75.

계의 연장'이다. 이런 논리에 바탕,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역설적인 삼위일체'(paradoxical trinity)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¹²⁾ 그것은 첫째, 전쟁 당사국 국민들의 열정과 증오와 맞물린 맹목적인 자연의 힘 둘째, 전장을 지휘하는 사령관과 그의 군대가 지닌 기회와 가능성 셋째, 한 국가의 정치적 지도력과 맞물린 정치로의 종속관계를 가리킨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목적이 적을 격파하는 것이지만, 적의 모든 영토를 정복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같은 논리에서 전쟁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을 전멸시킬 필요는 없다고 했다. 클라우제비츠에 따르면 전쟁 지도자는 우리 편과 적의 '결정적인 요소들'(decisive factors)과 '주요 특징들'(dominant characteristics)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¹³⁾ 그런 다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선 적의 중심부를 공격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클라우제비츠의 논리는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 이론으로 이어진다.

클라우제비츠의 무게중심 이론은 그 뒤 여러 실제 전쟁을 거치면서 군사 전문가들에 의해 전략적(strategic) 무게중심과 전술적(tactical) 무게중심 이론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적용됐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무게중심은 한 국가의 힘의 원천(source of power)으로 해석되고, 전술적 무게중심은 군사작전이 펼쳐지는 현장(전장)으로 받아들여진다.¹⁴⁾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전술적 무게중심은 이라크군 지휘부와 통제 체계였다. 영·미군의 강력한 공습으로 지휘체계가 마비된 이라크 군은 이렇다 할 전투를 벌이지도 못하고 궤멸 당할 수밖에 없었다. 2001년 아프간전쟁 때 오사마 빈 라덴의 전술적 무게중심은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이었다. 탈레반은 빈 라덴에게 정치적 망명처와 알카에다 군사훈련장을 제공해주었다. 그렇지만 미군이 수도 카불을 점령함으로써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자, 빈 라덴은 기댈 언덕을 잃고 파키스탄-아프간 산악지대로 몸을 피해야 했다.

전쟁을 가리켜 클라우제비츠가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행위”라 규정했던 것처럼, 클라우제비츠의 무게중심 이론은 적에게 패배를 안겨주기 위한 전술 전략적 측면을 지녔다. 지금껏 클라우제비츠 학파에 속

12) Ibid. p.89.

13) Ibid. p.595.

14) Schalch, Margaret E.(1997). “Planning for Peace Operations : The Relevancy of Center of Gravity” www.globalsecurity.org/military/library/report/1997/Schalch.htm.

한 여러 군사전문가들은 그의 무계중심 이론을 적용해, 어떻게 하면 병력 희생을 줄이고 전쟁비용 지출을 낮추면서도 전쟁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승리를 앞당길 것인가라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해왔다. 전쟁윤리라는 측면의 정의의 전쟁론과는 기본적으로 목적과 시각이 달랐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오로지 효율적 승리를 위한 전술 전략적 도구인 클라우제비츠의 뛰어난 전쟁이론 틀을 ‘평화 쟁취’에 변용함으로써, 전쟁당사국들이 적국을 군사적으로 패배시키고 적지를 점령하는 것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피점령국의 민심까지도 ‘점령해야’ (민심을 얻어야)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할 수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는 무계중심을 ‘패전국의 민심’으로 풀이한다면, 민심을 안정시켜야 (클라우제비츠의 용어를 빌면, ‘점령해야’) 한다는 것이다.

III. 빈 라덴이 설정한 미국의 무계중심

그렇다면 오사마 빈 라덴이 공격목표로 설정한 미국의 무계중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오사마 빈 라덴이 읽었는지는 알 수 없다. 무자헤딘(이슬람 전사)을 자처해온 빈 라덴은 클라우제비츠가 일찍이 설파한 전쟁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으로 판단된다.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빈 라덴은 미국의 전략적 무계중심을 미국의 여론(public opinion)으로, 전술적 무계중심을 미국 자본주의와 군사력의 두 상징적 건물인 세계무역센터와 국방성(펜타곤)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에 대한 증오와 저항의식에서 오로지 미 국민의 인명피해만을 목적으로 9·11 테러를 기획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빈 라덴이 일단 미국 본토를 테러공격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는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격할 것인가 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으로 상당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에 바탕해 보면 빈 라덴은 미국의 무계중심을 파악하는 데 먼저 초점을 맞추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우리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하는 정치행위로 규정했다. 빈 라덴은 ‘정치적 전쟁’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란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유효한 수단이다. 9·11 테러 공격을 통해 빈 라덴은 미국의 여론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 했다고 보인다. 그

정치적 목적이란 미국의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친이스라엘 정책을 수정하도록 강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중동지역에서의 세력균형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다. 또 아라비아 반도에 주둔중인 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의 친이스라엘 편향정책을 포함한 미국의 중동정책을 바꾸는 결과를 노렸을 것이다. 이와 관련, 미 정치학자 마이클 도란은 “빈 라덴은 미국과 전쟁을 벌여 미국을 패배시킬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분석했다.¹⁵⁾ 도란에 따르면, 빈 라덴의 진정한 목표는 미국과의 전면전이 아니라, 중동에서 미국과 친미세력을 몰아내고 이슬람 혁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라크 반미 저항세력도 이라크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친미 이라크정권을 전복하는 것이 그들이 설정한 정치적 목표다.

빈 라덴은 알제리 독립전쟁(1954~1962년)과 베트남전쟁 당시의 반전 여론을 비롯한 몇 가지 역사적 경험에 바탕, 9·11 테러로 미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과 이슬람권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전세계, 특히 미국에서 반전여론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난다면, 특히 미군 사상자들이 많이 생겨난다면, 베트남전쟁 때처럼 미국 내에서 반전여론이 일어나 중동에서의 미군 철수 등 미국의 정책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판단된다. 구소련 몰락 뒤 세계 유일 초강국인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통해 승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빈 라덴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과의 전쟁을 통해 빈 라덴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여론을 점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미국의 반전여론을 일으키도록 유도함으로써, 그리고 9·11 테러 뒤에 벌어질 전쟁을 통해 이슬람권에 반서방 감정을 증폭시킴으로써 빈 라덴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정치적으로 이기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 안에서 부시 행정부가 빈 라덴 동조세력을 상대로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는 것을 비판하고 견제해주길 기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다수의 여론이 왜 중요한가. 역사는 일단 분쟁 당사국의 여론이 악화되면, 그 상대방은 승리를 선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50년대의 한국전쟁, 알제리아 독립전쟁(1954~1962), 그리고 60년대의 베트남 전쟁이 고전적인 보기들이다. 이 세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일어난 여러 전쟁 가운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인명피해를 낳은 비극들로 기록된다. 알제리아 출신 의사 프란츠 파농의

15) Michael Doran, “Somebody Else’s Civil War” in *Foreign Affairs*, vol 81, no. 1 (January/February 2002).

“대지의 저주 받은 자들”(The Wretched of the Earth)을 통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알제리아 독립전쟁에서 식민지 종주국 프랑스의 군사력은 압도적이었다. 독립투쟁에 나선 게릴라조직 알제리 민족해방전선(FLN)은 전투력의 열세를 만회하는 수단으로서, 프랑스 안에서 반전여론을 일으키기 위한 전술에 주력했다.

그 가운데는 테러전술도 들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이 즈음도 그렇지만, 테러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유효한 수단으로서의 정치적 폭력이다. 독립전쟁 초기 FLN 지도자들은 프랑스인들에 대한 테러공격을 가능하면 피하려 했고, 친프랑스 알제리아 협력자(부역자)들을 처단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했다.¹⁶⁾ 그러나 전쟁 1년째인 1955년 FLN 지도자들은 유럽인들을 겨냥한 대규모 테러공격이 국제적인 눈길을 알제리아 쪽으로 끌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 정착민들을 비롯한 식민주의자들은 알제리아 인들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테러를 저지르곤 했다.

유혈투쟁의 잔혹상이 날로 심해가자, 프랑스에서는 장 폴 사르트르 같은 지식인사사중심으로 반전 여론이 자연스레 일어났다. 이 같은 반전여론은 1958년 “알제리는 프랑스 땅”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통령에 당선됐던 샤를르 드골 장군의 판단을 바꾸도록 만들었고, 1962년 알제리아를 독립시키겠다고 선언하도록 이끌었다. FLN의 약한 군사력이 막강 프랑스 군을 상대로 한 승리는 아니었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이론에 비추어 보면, FLN은 독립전쟁 과정에서 프랑스 여론을 프랑스의 무게중심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승리였다. 무게중심을 프랑스 군에 두었다면, 이룰 수 없는 승리였다. 그것은 정치적 승리였다.

2차 대전 뒤 미국이 개입한 두 개의 큰 전쟁인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도 미국내 여론이 전쟁의 흐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게 정설이다. 두 전쟁의 초기엔 미 국민들 가운데 60% 이상이 “미국의 개입결정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나타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미군 사상자가 늘어나자, 전쟁 막바지에는 지지율이 30%로 떨어졌다.¹⁷⁾ 한국전쟁의 경우 1950년 말 중국의 개입으로 미군이 밀리고 많은 사상자를 내자,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이런 흐름은 투르만 대통령이 휴전협상을 추진하도록 나서도록 만든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16) Hutchinson, Martha C., *Revolutionary Terrorism, the FLN in Algeria, 1954~1962* (Stanford : Hoover Institution Press, 1978), p.140.

17) Alan Monroe, *Public Opinion in America* (New York: Dodd, Mead & Company, 1975), p.210.

당시 투르만 행정부의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정책은 현상유지가 그 뼈대였다. 그러나 연합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그에 동의하지 않고, 원자폭탄을 비롯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적을 격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이론에 따르면, 전쟁은 정치적 행위이지 군사적 행위만은 아니다. 맥아더 장군이 해임된 것은 한국전쟁을 하루 빨리 끝내길 바라는 미국내 여론을 따르려던 투르만 대통령의 정책결정을 거스르려 했기 때문이었다.

베트남전쟁도 여론이 주요변수로 작용한 전쟁이었다. 알제리아 독립전쟁에서 프랑스군의 군사력이 알제리아 게릴라들을 압도했듯, 베트남전에서도 미군의 화력이나 전투력은 베트콩과 월맹군을 압도했다. 전쟁 개입 초기 미국 행정부가 주요결정을 할 때마다 미 국내여론은 그것들을 지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사자가 늘어갈수록 베트남전의 미국 개입에 부정적인 반전여론들이 닉슨 대통령으로 하여금 베트남전에서 미군철수를 결정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결정은 잘못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1965년 24%, 1966년 35%, 1967년 45%, 1969년 58%, 그리고 1973년 베트남전 평화협상이 파리에서 조인되기 직전엔 60%에 이르렀다.¹⁸⁾ 결과론적이지만, 로버트 에릭슨 같은 일부 미학자들은 “만약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가 미국내 여론의 장기적 추이를 미리 알 수 있었다면, (개입확대가 아닌) 다른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는 가설을 내놓았다.¹⁹⁾ 미국내 여론이 미국 정치에 지닌 영향력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일반적인 전쟁교범에 따르면, 심리전이란 적국의 여론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수행된다. 북베트남 하노이 정권은 군사력에서 미군을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미 행정부의 약점이 미국의 여론을 의식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가능하면 많은 미군 사상자를 내려고 노력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1968년 북베트남의 구정 대공세(Tet offensive)는 실패였다. 그러나 미국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성공이었다. 구정 대공세 뒤 미국인들은 “무슨 이유로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베트남에서 피를 흘려야 하는가”에 의문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8) William G. Mayer, *The Changing American Mind, How and Why American Public Opinion Changed between 1960 and 1988*(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2), p.69.

19) Robert S. Erikson, Norman Luttbeg, & Kent Tedin, *American Public Opinion: Its Origins, Content, and Impact*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0), pp.254~5

마찬가지로 오사마 빈 라덴은 자신의 9·11 공격에서 보다 많은 사상자를 내기로 계획했다고 보인다. 빈 라덴은 그럴 경우, 부시 행정부로부터 군사적 반응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다. 이런 군사적 반응은 아프간 탈레반 정권과 미국과의 한판 전쟁을 뜻하는 것임을 빈 라덴은 내다보았을 것이다. 아프간 전쟁이 미국과 이슬람 세계와의 전쟁이라는 구도로 발전되길 빈 라덴은 기대했을 것이다.

아프간 공습과정에서 빈 라덴이 낸 성명들은 이슬람지역의 총궐기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 대 이슬람권의 전쟁으로 이슬람권은 물론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히거나 피를 흘릴 것으로 빈 라덴은 예상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일어나고, 부시 행정부의 중동정책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길 빈 라덴은 기대했을 것이다.

클라우제비츠 전쟁이론에 따르면, 모든 군사적 행동은 심리적 효과와 맞물려 있다. 빈 라덴은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적 건물인 세계무역센터와 미국 군사력의 상징적 건물인 국방성(펜타곤)을 공격함으로써 미국에 던지는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CNN 효과도 빈 라덴의 계산속에 들어 있다고 보인다. CNN 효과란 어떤 사건에 대한 계속적이고 동시적인 TV 보도(이를테면 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의 미 공습 현장 중계, 또는 '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 시가전 보도)가 한 국가의 외교정책은 물론 국내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킨다. '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 거리에서 한·미 해병대원의 사체가 현지인들에게 끌려 다니는 것을 TV로 본 많은 미국시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소말리아 개입에 비판적으로 돌아섰다. 9·11 테러 공격으로 세계무역센터가 거대한 화염 속에 무너지는 장면은 빈 라덴이 노린 CNN 효과로 풀이된다.

9·11 테러 공격에서 1차 CNN 효과를 노렸다면 빈 라덴은 아프간 전쟁을 통해 2차 CNN 효과를 피하려 했다고 판단된다. 만약 미군이 탈레반군, 또는 알카에다 요원에게 포로로 잡혔다면, 그리고 그 장면이 언론보도(특히 TV 화면)를 통해 미국인들의 안방으로 전해진다면 미국의 아프간전쟁 개입을 비판하는 반전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CNN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아프간 전쟁을 맡았던 미군 중부사령부가 미군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중폭격과 더불어 북부동맹군을 활용하는 전술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빈 라덴은 비록 미국의 전술적 무게중심을 공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략적 무게중심을 격파(점령)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9·11 뒤 미

국에 애국주의 바람이 불고 부시 행정부에 대한 미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이 보여 주었듯, 반전 여론은 소수의 목소리에 그쳤다. 아프간전쟁 상황은 지금껏 그렇게 전개돼 왔다. 마찬가지로 2003년 미군의 공격으로 벌어진 이라크전쟁 때 이라크의 전술적 무게중심은 이라크군 지휘부와 통신체계였다. 미군의 강력한 공습으로 지휘부와 통신체계가 마비된 이라크 군은 이렇다 할 전투를 벌이지도 못하고 궤멸 당할 수밖에 없었다.

IV. 미국이 격파해야 할 ‘빈 라덴의 무게중심’

그렇다면 미국이 공격해야 할 빈 라덴 자체의 전략적 무게중심은 무엇일까. 이슬람 여론이 바로 빈 라덴의 전략적 무게중심이다. 빈 라덴이 전 세계(특히 미국의) 반전여론을 미국의 전략적 무게중심으로 설정했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리다. 빈 라덴은 9·11 테러 뒤 알 자지라 방송을 이용, 선전 공세를 폈다. 그 자신의 전략적 무게중심이 이슬람권 민중의 정치정서에 있다는 것을 빈 라덴이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클라우제비츠가 설파한 전쟁이론처럼 ‘적의 무게중심’을 점령해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현재 이슬람권에 널리 퍼져 있는 반미 감정으로 미뤄 미국은 적의 무게중심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반미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다.

빈 라덴의 전략적 무게중심인 이슬람 민중의 반미정서를 달래는 데 노력하지 않고, 빈 라덴과 그의 알카에다 세력 소탕이라고 전술적 부분에만 치우친다면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가능성은 그만큼 더더질 것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미국의 침공으로 후세인정권과 탈레반 정권이 무너짐으로써 전쟁의 주요과정을 막을 내렸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이 그러하다. 미국은 현지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쪽으로 미국이 전후 점령 정책을 펴나감으로써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안정을 앞당길 수 있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 들어갈 때 미 중부군사령관 토미 프랭크스 장군이 설정한 적의 무게중심은 부분적으로 타당했다. 다시 말해서 프랭크스 장군은 이라크군 지휘부의 통신 체계와 바그다드를 전술적 무게중심으로, 사담 후세인을 전략적 무게중심으로 설정했다. 미 공군대위 앤소니 시도티는 미 공군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작전도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에 따

라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이 글에서 시도티는 미 중부군사령관 토미 프랭크스 장군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전문가이며, 침공 작전을 짜는 그의 참모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미군이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서 수도 바그다드에 이르는 이라크의 주요도시들을 방어하는 이라크 정예부대들과의 접전을 피하면서, 바그다드로 우회해 진격한 것은 클라우제비츠의 무게중심 이론에 따라 바그다드 후세인 체제를 무게중심으로 잡고 그것을 붕괴시킨다는 전술을 세웠기 때문이었다.²⁰⁾

2003년 봄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토미 프랭크스 대장(당시 미 중부군사령관)은 먼저 후세인의 지휘계통 파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라크군의 통신체계가 무너지면, 충성도가 약한 이라크 군 장교단을 포함한 병사들은 후세인의 독전체제에서 풀려나 결사항전보다는 투항 또는 부대를 이탈하기 마련이다. 실제상황은 그런 쪽으로 벌어졌다. 전략적 무게중심으로 잡았던 사담 후세인 제거는 곧 미국의 이라크침공 목표 가운데 하나였던 ‘석유를 안정적으로 미국에 공급해줄 수 있는 이라크 친미정권 수립’을 뜻한다.

동양의 위대한 전략가 손자(孫子)는 “무릇 전쟁의 형태는 물과 같다”고 설파했다. 『손자병법』 허실편(虛實篇)에는 “물이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처럼 싸움에도 불변의 태세는 없다. 적의 태세에 따라 변화시켜야만 절묘한 병법”이라고 쓰여 있다. 이 가르침에 따른다면 클라우제비츠가 말하는 무게중심도 상황에 따라 바뀐다. 그렇다면 반미 무게세력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려면 적의 무게중심을 어디로 잡아야 할까. 결론은 명확하다. 세력과의 미국여론을 전략적 무게중심으로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게중심 여론을 전략적 무게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

미군의 압도적 화력으로 적을 격파하고 ‘전술적 무게중심’을 점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전략적 무게 중심’이다. 미국이 설정해야 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전략적 무게중심은 이슬람 세계의 민심이다. 미국이 반미 이슬람세력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정의의 전쟁이 요구하는 세 가지 기준, 즉 ‘전쟁 선포의 정당성’(jus ad bellum)과 ‘전쟁 행위의 정당성’(jus in bello)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특히 ‘전쟁종식의 정당성’(jus post bellum) 기준을 잘 지켜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슬람의 민심을 달래

20) Anthony F. Sidoti “The Relevance of Carl Von Clausewitz in Operation Iraqi Freedom”, Air & Space Power Journal, 21January, 2004, <http://www.airpower.maxwell.af.mil/airchronicles/cc/sidoti.html>.

는 것이다. 점령지의 민심을 장악하지 못하면 정의의 전쟁을 치렀다고 말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안정을 이뤄내기 어렵다. 문제는 이슬람권의 경우 반미정서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필자가 이라크 현지 취재 때 거듭 확인한 중요한 사실 하나. 대부분의 이라크 사람들은 사담 후세인 독재를 미워했지만 이라크 땅에 외국군(미군)이 장기 주둔하는 데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 이는 아랍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정서로 풀이된다. 미군 점령 아래 바그다드 서쪽 외곽에 자리 잡은 아부 그라이브 감옥과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의 무슬림 포로 학대, 그리고 더욱 노골화되는 미국의 친이스라엘 일방주의는 반미감정을 악화시킨 3대 요소로 꼽을 수 있다.

빈 라덴은 이미 이슬람의 전략적 무게중심이 반미정서에 바탕 한 민심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9·11 뒤 알 자지라 방송을 이용한 일련의 잘 계산된 선전 공세들은 전략적 무게중심이 이슬람권 민중의 정치정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이슬람권을 향해 반미 투쟁이유를 설명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반미정서를 부추기는 잇단 미디어 공세를 펴는 것은 다름 아닌 전략적 무게중심을 겨냥한 것이다. 그런 미디어 공세는 9·11 테러 뒤 지난 8년 동안 많은 무슬림 청년들로 하여금 국경을 넘어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무자헤딘(이슬람 전사) 투쟁 또는 유럽에서의 자생적인 테러활동에 몸을 던지도록 이끌어 왔다.

클라우제비츠 무게중심 이론은 2006년 여름 이스라엘 - 레바논 헤즈볼라 전쟁에 대입해도 유효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스라엘이 설정한 헤즈볼라의 전술적 무게중심은 헤즈볼라 지도부다. 헤즈볼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마즐리스 알 슈라’(평의회)이지만, 지도부의 정점은 헤즈볼라 사무총장 셰이크 하산 나스랄라(1960년생)다. ‘젊지만 카리스마가 강한 인물’로 알려진 나스랄라는 1992년부터 헤즈볼라의 실질적인 지도자다. 이스라엘군이 개전 초기부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지역을 강타한 공습도 나스랄라의 은거지로 의심되는 곳들을 노린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스랄라 사무총장을 죽이는 데 실패했다. 헤즈볼라의 무게중심을 점령하지 못한 셈이었다.

한편으로 헤즈볼라의 전략적 무게중심은 레바논 안에서의 헤즈볼라 지지도,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이슬람권의 헤즈볼라에 대한 지지도다. 레바논은 다종교사회로 바로 그 때문에 오랜 내전을 겪은 나라다. 이슬람교도들도 있지만 기독교도들도 있다. 이스라엘은 개전 초기에 베이루트 공항과 발전소, 도로 등을 공습함으로써 레바논 사회에 반(反) 헤즈볼라 여론이 일어나길 기대했다. 이스라엘은

자국병사 2명 피랍을 명분 삼아 레바논을 무차별 폭격함으로써 일반 레바논 국민들이 “헤즈볼라가 왜 이스라엘 병사를 납치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겪게 만드느냐”는 불만을 사도록 바랬다. 전쟁 초반에는 실제로 그런 불평들이 터져 나왔다.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공습과 포격으로 가족과 집을 잃은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레바논에는 반이스라엘 감정이 훨씬 높아졌다.

그 반사이익은 헤즈볼라가 가져갔다. 레바논 안에서 헤즈볼라에 대한 지지도가 전에 비해 높아졌다. 전쟁이 일어난 뒤 미국이 이스라엘에 정밀유도탄 등 군사물자를 신속하게 공급해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랍권의 반미 - 반이스라엘 감정은 더욱 커졌다. 클라우제비츠가 설파한 전쟁이론처럼 적의 무게중심을 점령해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슬람권에 널리 퍼져 있는 반미감정으로 미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전략적 무게중심을 점령하기는 커녕, 그 전략적 목표를 하향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V. 글을 마치며

9·11 테러사건 뒤 지금까지 8년이 지나면서 이슬람권에 널리 그리고 깊이 파고든 반미정서로 미뤄, 미국의 전쟁 지휘부는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라크는 아프가니스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을 이룬 상태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유럽국가들과 미국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슬람 저항조직의 테러 공격 가능성에 늘 긴장하는 모습이다. 클라우제비츠가 설파한 전쟁이론처럼 전쟁의 진정한 어려움은 여론 장악을 비롯한 정치부문이지, 군사부문이 아니다. 미국이 반미 이슬람 저항세력(이슬람 지하드)과의 전쟁에서 승부처는 뚜렷해진다. 이슬람 세력의 정치정서를 누가 휘어잡느냐가 승패를 가름한다. 이슬람세계의 전략적 무게중심이 이슬람 민중의 반미정서라는 사실을 소홀히 한다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승리를 거두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정책을 펴면서 이슬람의 무게중심인 여론(민심), 보다 구체적으로는 반미정서를 누그러뜨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진정한 승리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이 희생을 치러서라도 보다 나은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전쟁 전보다 현지 민간인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야 전쟁이 주는 최소의 보상이다.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간안보

(human security)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패전국이든 승전국이든 가릴 것 없이 무엇보다 사람들이 전쟁 전보다 살기 편안해졌다고 느껴야 한다. 전쟁이 희생을 치러서라도 보다 나은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전쟁 전보다 사람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야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최소의 보상이다.

이 글의 요점을 마무리하자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려면 이슬람권 여론을 장악해야 한다. 승전국은 패전국의 민심(public opinion)을 '점령'(장악)해야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고 지속적인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려면 군사작전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이 글 맨 앞에서 황의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말했던 것처럼)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의 민심을 잡는 쪽으로 대민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중동정책에도 큰 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현재의 친이스라엘 일변도 정책을 비롯한 미 중동정책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날 조지 부시 대통령의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이슬람 반미 저항세력의 소탕이라는 전술적(군사적) 부분에 매달린다면, 아울러 친이스라엘 일변도의 중동정책을 이어나간다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반미 이슬람 세력을 완전 섬멸하고 승리를 선언하기까지는 더 많은 인내와 비용이 요구될 것이다.

(원고투고일 : '09. 10. 2, 심사수정일 : '09. 11. 3, 게재확정일 : '09. 12. 29)

주제어 : 클라우제비츠, 오사마 빈 라덴, 9·11테러, 이라크, 전술전략

Strategy and Tactics for War in Afghanistan

Jae-myung, Kim
Sungkonghoe University

This thesis paper examines and offers a solution for Allied forces to claim victory on war in Afghanistan. This paper provides a perspective through using the theory of Center of Gravity by prominent German strategist, Clausewitz. First, Kim explains the theory of Center of Gravity and then expands the theory to apply to current war in Afghanistan.